"서로를 살리는 부부"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있는 자리가 아름답고 환합니다."

찬불가책을 함께 들고, 마음을 모아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스함이 베어난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 첫째 토요일 저녁. 서울 목동 법안정사 법당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목동 법안정사 '부부법회' 현장

100여 쌍의 부부.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들 모습에 한 점 걱정이 없어 보인다. 상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들이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평생의 인연,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험준한 세파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동지인 그들. 오늘은 부처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

93년 부부불자회 결성…100여쌍 참가
월1회 '보현의 집' 봉사·경조사 염불지원
월말께 홈페이지 개설·신혼부부 영입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부부가 함께 부처님의 법을 만나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샘이 날 정도다. 법안정사 부부법회 회원들은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문 속에 깊이 빠져 있다.

오늘의 설법 주제는 '서로 살리는 길'.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부처님이 말한 '불살생(不殺生)'은 단지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 합니다." 이날 설법을 맡은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몇 아내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본다.

법안정사가 부부법회를 열게 된 것은 93년 3월경. 평범하게 서울 사는 부부들에게는 직장생활과 살림살이에 바쁘다 보면 한 주 내내 얼굴 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보면 결혼 초기의 열렬한 사랑은 금새 식어버리고 부부 사이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넘어가기 일쑤. 법안정사 불자들은 이렇게 소원해지는 부부 관계를 새롭게 가꿔보자며 부부불자회를 꾸리게 됐다. 처음 직장생활에 바쁜 남편들의 참석이 드물었지만 부부법회를 연 후 부부 싸움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매번 100쌍이 넘는 불자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가정법회분과, 산행분과, 상조분과 등 6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되어 불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가정법회분과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된 지부를 순회하면서 매달 산행법회, 야외법회, 기도법회 등 다채로운 형태로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봉사분과에서는 월 1회씩 영등포 '보현의 집' 봉사와 탑골공원 급식소 봉사를 하고 회원 불자 집안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염불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별도의 염불봉사단도 꾸려져 운영중이다. 또한 산행분과에서는 매달 정기적인 산행법회를 마련해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있다.

김원국 부부불자회장은 "10월 말경 부부불자회를 위한 홈페이지(www.buban.co.kr)를 개통할 계획이다"며 "신혼 부부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부부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행복한 소문

◆노인의 달 행사=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주간보호 노인들과 함께 춘천 남이섬을 찾아가는 야외나들이 행사가 25일 열린다. 노인과 대화하는 법, 노인부양가족의 스트레스 대처법 등에 대한 가족간담회와 독거 노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랑나누기' 행사는 25, 26일 개최된다. 또한 30일에는 노인 3백 명에게 무료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한다.(02)385-1351

◆작품전시회=강북노인복지관은 16~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내에서 '제2회 금빛향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02)992-6783

◆족보상담=한국보학자료에서는 각 문중의 족보 및 관련문헌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02)2201-8115

◆간병인 모집=종로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인 사업단 회원을 모집한다. 보수는 12시간 3만5천원, 50시간 무료 교육 후 각 병원에 배치된다.(011)9889-3693

◆무료독감예방주사=안양시는 지역 거주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19일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031)389-2114

그리운 사람에게 詩 한편을

감정의 현(絃)이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콧잔등이 시려 오고, 묵혀 두었던 아린 추억에 가슴앓이를 하기도 한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특히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어쩌랴. 묵은 사진첩을 꺼내본다고 지난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 생각 돌려 보자. 잠 못 이루는 밤이 어찌 나 혼자만의 일일까.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려 보자. 한둘이 아닐 것이다. '내가 너무 무심했지. 안부 한번 묻지 못한 지가 몇 년째야?' 하는 말이 혀바닥에 고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수화기를 들어 그리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사는 얘기 거두절미하고, 좋아하는 시(詩)라도 한편 읽어 주자. 처음에는 '어, 이 친구 왜 이래?' 하다가도 '그래, 우리도 한 시절에는 시를 읽기도 했지' 하면서 행복감에 젖어들 것이다.

누구에겐가 시를 읽어 주자. 괜한 시름에 한숨만 키우지 말고.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결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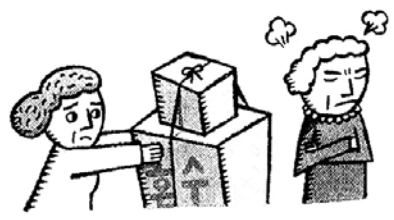
29살의 직장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예비신부의 고민을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중반에 사업을 하던 남편이 엄청난 부채를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나자 신부 어머니는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3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어머니는 14 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고 딸 아들을 데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채권자들한테 머리끄덩이를 끌리기도 하고, 주먹질은 물론 뺨까지 맞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니 남편이 저질러 놓고 간 부채를 정리하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겼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 당시 예비 신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혼자된 어머니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녀들 공부만은 엄격하게 시켰기 때문에 남동생도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어머니는 반찬 만드는 일을 시작해 지금은 꽤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 하지만 착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어머니는 오랜만에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사귀던 남자와 결혼 날짜를 잡고 나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예단 문제로 양가가 깊은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말이 오고 갈 때만 해도 결혼을 간소하게 치르자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어머니가 막상 결혼날짜를 잡고 나니 혼수품은 물론 예단 2천만 원을 보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예단 2 천만 원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의 요구를 묵살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예단을 보내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예비신부는 괴로운 얼굴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머니는 제가 만약 그 사람과 꼭 결혼을 하겠다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그 쪽에서 요구하는 예단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장만한 아파트를 팔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예비신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비신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될 분이 왜 2 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까지 정해서 예단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에 신랑 될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자 예비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며느리를 볼 때 그 정도의 예단을 다 받았나 봐요. 서로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키워 온 그 분들은 사소한 문제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가 가난한 집 딸이라는 걸 친구 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남편 될 사람도 어머니의 그런 면을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그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봐요."

결혼은 생명질서·자연순리 좇는 일

예비신부의 고민을 듣고 있는 제 머리 속에는 화면으로 보던 동물의 세계가 떠올랐습니다. 동물들은 공중에 사는 새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든, 뭍에서 사는 짐승이든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새끼를 키운 후 그 새끼가 자립해서 혼자 살 수 있게 되면 가차 없이 새끼들을 떠나보내고 자신이 새끼를 키웠다는 사실 자체도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 자연의 순환을 따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모들이 냉정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며느리를 본다든가, 내가 사위를 본다고 하는 자기 집착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테니까요.

化緣 (02)704-3577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량 복사본 판매행위 해결에 도움을 주신
전국 활인 천역자 제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효사 배상 -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설명비디오 포함)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효사 육임강의록 W300,000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